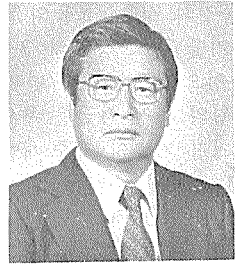


86년까지 대규모 尖端技術團地 完工



許 慎 九 / (株)金星社 社長

큰 희망과 단단한 각오로 출발했던 癸亥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 책상 위의 카렌다가 몇 장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맘때면 지나간 한 해의 순간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게 된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한국 電子産業의 한 일꾼으로서 보람과 아쉬움을 같이 느낀다. 전자산업의 거센 물결은 이미 선진국을 휩쓸고 우리나라에도 급속히 밀어 닥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時事 주간지인 Time지는 1927년 이래 그해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왔다. 연초에 선정된 82년 올해의 인물은, 후보였던 대처 영국 수상, 베긴 이스라엘 수상,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영화 ET를 물리치고 사람이 아닌 Mr. Computer가 차지하였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Computer, VTR, OA기기 등의 尖端電子製品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생활에 깊이 파고 들고 있으며 거리에는 컴퓨터 전문점들이 자주 눈에 띄고, 수많은 컴퓨터 학원에 수강생이 넘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컴퓨터 마인드(mind)를 확산하고, 컴퓨터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교과목을 신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자업계와 힘을 합하여 컴퓨터를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우리 업계도 이와 같은 대세와 정책에 부응하여,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常設展示場을 운영하고, 韓國 電子展覽會, 기업별 新製品展示會 등을 개최하여 尖端技術과 제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컴퓨터 전문점을 전국에 개설하여 유통망을 확립하며, 신규 공장 건설과 생산 라인의 증설로 첨단 제품의 양산 체제에 돌입하였다.

금년 정초 본지면에 새해를 맞는 나름대로의 설계를 밝힌 바 있었다. 그때 본인은 우리 전자업계가 83년에 추구해야 될 과제는 제품의 경쟁력을 국제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국제 수준의 경영 능력을 갖추것과 기술 개발력의 축적을 강조한 바 있다. 올 한 해 동안 상당한 진전은 있었지만 이는 한 해에 이루어질 과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오일 가격의 안정세 유지와 세계적인 高金利 추세가 수그러짐에 따라 오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경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해였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도 크게 호전되어 GN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8.8%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8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도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L/C 내도액이 계속 증가하여 84년의 輸出 展望 또한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업계는 올해 그 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정초에 우리 전자 업계는 輸出 25.8억弗, 內需 20억弗로 목표를 세웠으나 업계의 꾸준한 노력과 시장 상황의 호전으로 수출 28~29억弗, 내수 30억弗를 실현하여 연초의 예상 목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업계의 지속적인 製品 개발과 시장 개척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자랑스럽기도 하다. 또한 産業用 電子 機器 部門이 작년보다 30% 이상 성장하였음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제 올해 우리 업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보기로 한다.

먼저 올해는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본격화된 해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연초 技術振興擴大會議에서 기술 약진 전략을 국책사업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하고, 기술개발 투자의 다원적 확대, 기술의 수요 창

출, 품질과 성능 효율의 향상 시책을 기술 주도 정책의 3대 중점 사업으로 삼고 87년까지 2,000억원의 재정 자금을 투입하여 핵심 거점 기술의 집중 개발과 高級人力 確保에 주력하고,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를 「情報 産業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육성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보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각종 육성책, 실행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확실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두번째는 제품 구조와 업계 이미지의 변화이다. 종전의 가정용 전자기기 위주의 제품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첨단 제품에 대한 연구와 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출시도 급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업체를 보는 눈도 종래의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생산업체에서 Computer, OA 등의 첨단 제품 생산업체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家電製品에 대한 연구 노력도 계속되어 技術進歩에 의한 원가절감으로 제품 가격을 내리고 모델의 다양화, 신기능 개발로 소비자의 변화하는 기호에 대처하였다.

세번째로는 세계 전자산업의 메카라고 일컫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벨리에 우리 업체들이 기술 거점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기술 거점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의 정보와 신진 기술을 현지로부터 재빨리 습득하고, 고급 두뇌를 유치하며 첨단 산업의 수주 활동까지 벌이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정책의

장벽을 타개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기업의 국제화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적 가동을 보이고 있는 현지 생산 공장과 더불어 해외 진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크게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업계 저널이 더욱 활발히 움직인 해이다. 컴퓨터비전 등이 창간되고, 電子振興, 電子時報 등의 업계 종합지와 경영과 컴퓨터, 월간 컴퓨터, 情報時代 등의 OA, Computer 분야의 전문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해외 정보의 수입과 업계 정보의 교환 등으로 업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업계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금성사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 금성사는 올해 창립 25주년, 4반세기기를 맞는 뜻깊은 해였다. 58년 진공관식 라디오를 생산함으로써 기술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전자 기술의 씨앗을 뿌린 이래 업계 선도자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家庭用電子, 電氣機器에서 대형 컴퓨터까지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4반세기 동안 쌓아온 기술을 자신있게 내보인 신기술 제품 전시회, 産學協同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대학생 논문 현상 모집과 산업 디자인 공모전 등의 창립 4반세기 기념 행사를 열었다. 올해 금성사의 經營成果는 소비자의 성원과 업계 여러분의 도움, 그리고 종업원들의 노고의 결실로 연초에 세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특히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매출액의 4%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

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말 평택에 Computer, OA, VTR 등을 생산할 대규모 綜合尖端 技術團地를 착공하였으며, 86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완공시킬 계획이다.

또한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의 구축과 세계 속에 GS 이미지를 심기 위한 노력에 특히 중점을 둔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기술과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84년에도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國際 原資材 價格, 미국의 高金利推移, 開發途上國의 外債문제 등의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 무드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업계도 나름대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84년 업계의 당면한 과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업계 제품 구조의 高度化를 앞당겨야 하겠다. 이제까지의 가정용 전자기기 중심에서 산업용 전자기기 중심으로 그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아가고 있지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산업용 로봇 등의 고부가 가치를 가진 첨단 산업 분야로의 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첨단 산업의 전분야에 걸친 엄청난 속도의 수요증가는 더 이상 우리 업계의 주력을 가정용 전자기기에 머물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세번째로 높은 나라면서 資源과 에너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가가치와 외화 가득률이 높고, 두뇌 집약적

인 尖端 技術 산업 분야의 육성과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명은 바로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技術革新 물결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신기술의 도입과 자체 개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 첨단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특히 部品 素材의 품질 향상과 국산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연구와 기술투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을 政府施策이나 學界 研究에만 매달릴 때는 이미 지났다.

민간 주도하에 기업과 정부, 학계가 합심하여 신기술 도입, 개발을 꾀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 연구를 통한 Project의 수행은 크게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또 충분한 대우를 보장해 주어 외국에 있는 우리 고급 인력을 불러들이고, 국내의 인재를 계속 해외 신기술과 접촉할 수 있도록 과감히 유학을 보내 핵심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력 개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이 바로 기술혁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다. 이제 좁은 국내시장으로는 커지는 업계 규모를 스스로

감당해 갈 수가 없다. 특히 올해 들어 몇 개의 대기업이 전자업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시장은 더욱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다. 또한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고, 점점 거세어지는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제품과 기술의 國際 競爭力을 바탕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밖에 없다. 계속적인 輸出 指向 戰略과 技術 據點의 確保, 海外 工場, 海外 法人 등을 통한 해외 진출의 다양한 전략 모색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감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오는 84년에는 업계가 더욱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 모두의 각오와 건승을 빈다.

